

제10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5.07.16.(수) 15:00 ~ 18:00

2. 장 소 : 율곡관 COSS 제1회의실

3. 참 석 : 위원 총 14명 중 13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노재성 부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송재원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재건 평의원, 이희원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불참위원 : 김홍환 평의원
- 배석 : [본교] 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예산팀 김지혜, 홍보실장, 홍보실 정우준
[의료원] 기획팀장, 기획팀 김형욱

4. 의 안

○ 보고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 2025학년도 신설학부(전공자율선택제) 중도탈락 현황
- 대학의 홍보 현황 및 전략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보고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자문사항

-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2025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2025학년도 교비회계 기금 용도변경(안)

5. 주요 회의 결과

가. 보고사항

1)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 강원구 평의원은 자교생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현황을 문의하고, 법

<간서명 란>

의 장

이재호

학전문대학원장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진학 현황을 설명하다. 입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자교생 입학 인원이 적은 이유는 자교생의 지원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인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과 연계전공 신설 등 자교생 유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하다. 이에 김태균 평의원은 자교생 지원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다.

2) 2025학년도 신설학부(전공자율선택제) 중도탈락 현황

- 기획팀장은 2025학년도 6월 기준 신설학부의 중도탈락 현황을 보고하다. 호정화 위원은 현재 상황은 양호하나 반수 준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과 및 대학에서 중도탈락을 걱정하고 있는 만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3) 대학의 홍보 현황 및 전략

- 홍보실장은 최근 수년간 주요 매체에 게재된 본교의 연구·교육·행사 관련 기사 및 주요 대학과의 기사량 비교 자료, SNS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 등 홍보 현황 및 전략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다.
- 이재호 의장은 아주대학교 유튜브의 교수 브이로그 콘텐츠와 관련하여, 대학의 SNS 채널 운영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추진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다. 이에 대해 홍보실장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도자료 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현재는 ‘출처’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며, 매체 전략에 앞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다. 또한, 우수한 학생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게 하느냐’가 핵심이며, 타깃 설정과 효과적인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홍보실의 정우준 과장은 현재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 중이며, 단순한 조회수 증가를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아주대학교의 학업적 진정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관심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에

<간서명 란>

의 장 0/29도

대해 이재호 의장은 그동안 콘텐츠가 다소 진지한 방향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던 만큼,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다.

- 이재전 평의원은 최근 고등학생들이 본인의 의지로 대학을 선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고등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다. 아주대학교 관련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교수가 학생들과 직접 스킨십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다. 홍보실장은 좋은 전략이며 각종 이벤트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해줄 것을 요청하다.
- 송재원 평의원은 대학평가에서 평판도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량적 지표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대해 홍보실장은 평판도 지표 산출 구조상 서울 소재 대학,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권 대학으로서 한계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하다.

4)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보고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사전 보고하다.

○ 제4조(기구) 별표1

- 지원기관 신설(일반대학원 산하 대학원혁신센터)
- 산학협력단 개편(창의산학교육원→지산학융복합교육원, 신산업기술혁신원→지산학미래혁신원)
- 총장직속기구 개편(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폐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 신설)

- 이재호 의장은 대학원 발전 및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학원장을 초청하였으며, 대학원 혁신센터 신설은 단순한 BK사업 수행을 넘어 대학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이공계열 대학원 축소와 연구중심대학원 기능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실행 계획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평의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다. 대학원장은 취·창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학부 중심의 지원을 대학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본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간서명 란>

의 장 이재호

하다. 아울러, 현 체제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원혁신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설명하다.

- 의원들은 사전보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해 2025-제1차 임시교무회의 심의 이후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다.

나.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4조(기구) 별표1 : 전문화연구기관 신설(인공지능연구소, 휴먼ICT실용화연구소)

- 연구소 명칭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연구소’는 명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향후 대학 차원의 유사 사업 추진 시 명칭 선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휴먼ICT실용화연구소’는 명칭상 인문·사회계열 융합이 내포되어 있으나, 현재 공과대학 교수만 참여하고 인문계열 교수의 참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되, 연구소 신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구소 명칭에 대한 학교 내부적인 추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다.

다. 자문사항

○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의료원 기획팀장은 기획조정실장의 출장으로 인해 대리 설명하게 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2024학년도 결산에 의거한 전기 이월자금 예산편성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 예산편성 ▲입원환자 증가, 전공의 복귀 기대 등에 따른 수입예산 증가 반영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조정 반영 ▲기타 정책 추진 사항 등의 반영(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채원 의료기기 등)

<간서명 란>

의 장

0/29호

2) 자문사항

- 이재호 의장은 예산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외래 환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수입 증가는 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에 따른 수가 인상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임을 언급하다. 아울러 해당 수가 인상이 3년간만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이후 지속 여부에 따라 병원의 수입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다. 이에 대해 의료원 기획팀장은 현재 자금 흐름을 예측 중이며, 수가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2025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2024학년도 결산 미사용이월금 추가분 반영 ▲국고사업 등 수입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반영

2) 자문사항

- 이재호 의장은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2024년 결산 대비 낮아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기획처장은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부담비율은 낮아졌으나, 결산 시점에 최종 조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의장은 법인 책무성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이재호 의장은 대학원 혁신 관련하여 교육의 질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생 복지 확보 등을 포함한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선은 전일생 학생 등록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확일적 정률 장학이 아닌 이공계 및 인문사회 등 계열간 특성 및 외국인 학위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장학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다. 기획처장은 해당 의견에 동의하며 학생인건비 제도 변화 및 외국인 유학생 확대 등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대학원 장학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답변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비책을 질의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다. 기획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는 사회수요에 맞는 첨단학과 신설 및 외국인 유학생 유입 확대 등에

<간서명 란>

의 장 0/24ㄴ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유학생유치확대전략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숙사, 강의실 확보 등 교육 환경 구축 및 관련 예산 투입 및 학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혁신 역시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덧붙인다.

- 송재원 평의원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관련하여 타 대학에서는 3D프린터기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학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전하다. 김태균 평의원은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예상 수요와 소요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예산팀장은 타 대학은 국고 사업을 통해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특정 부서에 대한 지원 확대는 형평성 문제 등 대학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겠다고 답하다.
- 허준석 평의원은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의 사업비는 현재 배정이 이미 완료되어 학교의 신규 사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다. 이에 예산팀장은 대학의 창업지원은 정부계정지원사업에서 주요 사업 분야로, 향후 기회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기획처장은 최근 창업지원단 부단장이 새로 임명되었고,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RISE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 이재건 평의원은 교내 체육시설 개선(APP)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들 사이에 도서관의 노후화된 화장실 등 기존 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다.
- 이재건 평의원은 학생회장 선거비용 및 총학생회 운영비 교비 지원방안을 건의하다. 기획처장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은 학생회비로 우선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비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학생처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총학생회 운영에 있어 학교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생회장 선거는 민주적이고 공적인 활동으로 사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간서명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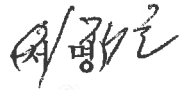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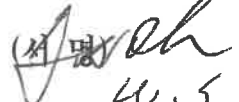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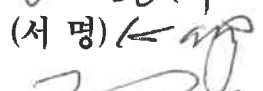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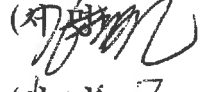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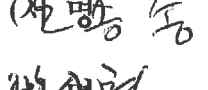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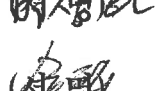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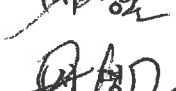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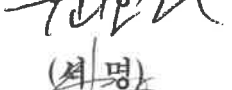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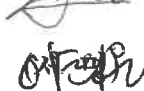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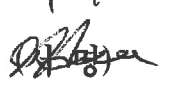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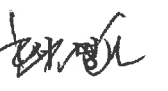
의 장 0/27

이재호 의장은 학교 유튜브 채널 등 공적 매체를 활용한 후보자 토론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학생 선거 문화 형성을 위해 학생과 학교가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다.

○ 2025학년도 교비회계 기금 용도변경(안)

- 예산팀장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기금 용도변경(안)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교비회계 기금 용도 변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2025. 7. 16.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재호	
부위원장	노재성	
평의원	강원구	40.5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송재원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재건	
평의원	이희원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